

막막한 개발자 취업준비 지방대 무스펙이 경험한 대기업 취업 뽐내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대기업 취업 방법 !!!

포트폴리오-서류-코테-면접까지 구체적 방향 제시 !!!

동기부여부터 마음가짐까지 !!!

합격이다!

목차

Part 1

동기부여 단계

- 1-1. 나는 평범한 지방대 대학생
- 1-2. 대기업 취업 결심한 계기
- 1-3. 대기업 취직하면 좋은 이유

Part 2

취업준비 단계

- 2-1. 대기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 2-2. 서류전형 프리패스하는 자소서
- 2-3. 대기업 코테 3개월 완성
- 2-4. 내가 주도하는 면접 준비
- 2-5. 합격에 도움 되는 자격증

Part 3

마음가짐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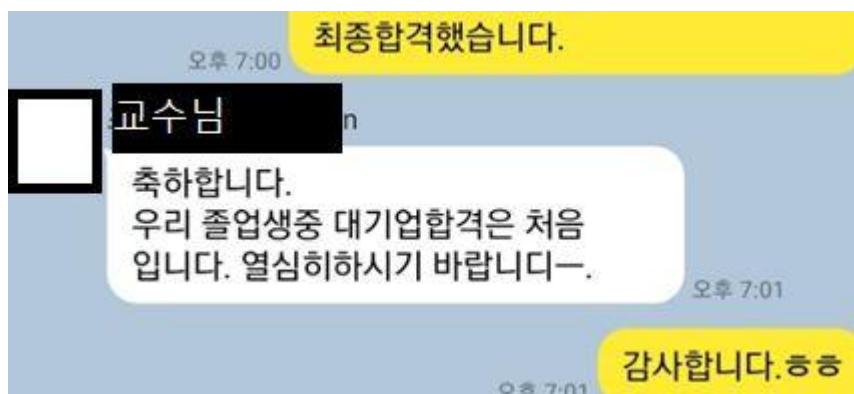
- 3-1.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 3-2. 자신에게 엄격하라
- 3-3. 조급해하지 마라

머리말

동기들 보다 2년 더 늦게 복학을 해서 대부분 동기들이 이미 사회에 나가 경력을 쌓고 있었다. 늦었다는 생각이 가득차서 조급함이 밀려 왔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열심히하면 누군가 데려가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졸업때까지 취업에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졸업 후 취업준비를 외롭게 했다. 준비를 할 때 깨달았다 미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배님들이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취업 준비할 때 누군가가 방향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졸업 후 백수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해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후배들에게 나처럼 너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취준생 때 간절히 원했던 그 누군가가 되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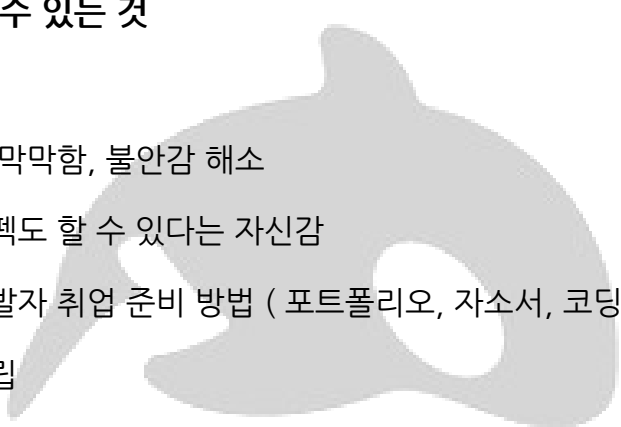


내가 다니던 지방대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처음으로 바로 대기업에 입사한 졸업생이 되었다. 난 후배들에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우린 항상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고 얘기한다.

아무데나 가서 실력을 쌓으면 되겠지 하면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실력도 빠르게 쌓이지 않을 것이다. 운이 좋아 좋은 사수를 만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 큰 곳으로 갈 수록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무엇을 물어야할지 몰라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마음도 알고 있다. 진로에 대한 막연함을 가지고 조금하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굉장히 고민하며 거짓 없이 글을 썼다.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 
1. 취업에 대한 막막함, 불안감 해소
 2. 지방대 무스펙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3. 구체적인 개발자 취업 준비 방법 (포트폴리오, 자소서, 코딩테스트, 면접)
 4. 마음가짐 정립

이 책을 보는 후배님도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책만 읽는다고 해서 실력이 늘거나 스펙이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취준에 성공할 수 있다.

출신에 막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지방대출신 취준생분들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원동력을 심어주고 싶다.

나는 원래부터 똑똑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적어도 나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Part1. 동기부여 단계

1-1. 나는 평범한 지방대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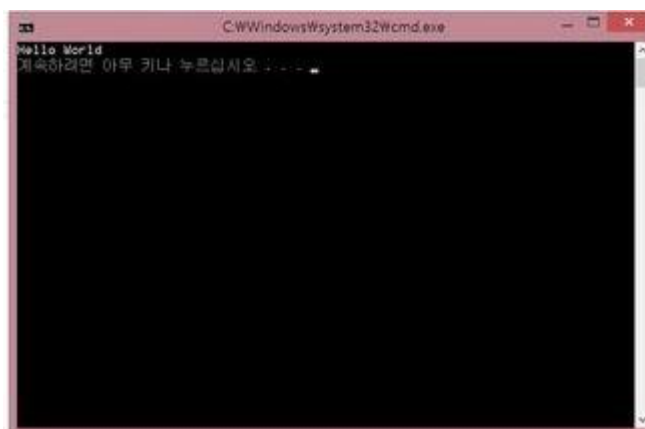
중,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네임밸류 있는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IT 대기업에 입사한 개발자가 아니다.

대기업 개발자라고 하면 학교 네임밸류, 엄청난 기술 경력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지방의 하위권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여 IT 대기업에 입사한 4년차 개발자다. 중,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은 하위권을 유지했다. 프로그래밍 경험도 없었고 단순히 컴퓨터 게임이 좋아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다.

내신 또는 정시 성적에 맞는 지방의 4년제 하위권 대학에 진학했다. 컴퓨터공학은 내가 생각했던 아주 멋진 개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C언어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Hello World”를 검정색 콘솔창에 출력을 하고 다같이 박수를 유도했다. 나는 속으로 ‘저게 뭐야..’ ‘저게 프로그래밍이야?’ 라고 생각하며 맨 뒷자리에서 스타크래프트 터렛

디펜스를 즐겼다. 수업에 출석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이렇게 1년을 생각 없이 보내고 군대에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게 되었다.

군 생활 중 싸지방을 이용해 코딩 공부를 하고 멋있게 인생을 역전했다 라는 스토리도 많지만 그 스토리의 주인공도 나는 아니다. 군대도 아주 평범하게 열심히 군 생활만 하며 보냈다. 전역을 2달 앞두고 다시 복학을 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로그래밍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잘해서 살자라고 자퇴를 결심했다. 부모님의 만류에 자퇴는 미루고 1년 추가 휴학을 신청했다. 술집 창업을 할거라는 목적으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했다.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은 그저 생각없이 놓고 있는 휴학생이었다.

1년을 채우기 전에 주변의 눈살을 이기지 못해 복학을 결정하게 된다. 컴퓨터공학과가 아닌 다른 과로 전과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제대로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게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딱 한 학기만 제대로 해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복학을 했다.

1학년 때 뭘 배웠는지도 몰라 남들보다 뒤쳐질 거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무식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맨 앞에 앉아서 교수님들 강의를 녹음하기도 했다. 내 머리로는 한번에 이해할 수 없을거라 생각해서 여러번 들어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들은 10분이면 끝내는 과제도 나는 5~8시간 오랜 검색 끝에 완료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JAVA] 수업의 두번째 과제가 단순한 사칙연산 결과 출력하기였지만 난 8시간이 걸렸다.)

나는 정말 뛰어나지 않은 오히려 부족함이 가득했던 대학생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했으니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다.

1-2. 대기업 취업 결심한 계기

지방대 출신들의 흔한 취업 계획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먼저 취업을 하는 것이다. 2년 정도 죽어라 굴러 실력과 경력을 쌓고 더 큰 기업,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을 통해 점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 대부분 개발자들은 2년 단위로 이직을 통해 몸 값을 올리면서 성장한다.

나 또한 당연한듯이 위와 같은 계획을 세웠고 4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 아버지에게 내 계획을 얘기했다.

“아버지 전 2,700~3,000정도되는 연봉을 받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2년 뒤 이직을 하며 연봉을 올려나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아버지는 개발자에 대해 모르는 옛날 사람이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나무랐다.

아버지는 졸업 전날까지 자퇴하고 2년제 전문대로 재입학하라고 얘기하셨다. 내가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SKY/서울 4년제 대학교 출신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게임이 안될 것이라며 대기업에는 절대 갈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지으셨다.

이 일을 계기로 목표가 생겼다. 무조건 대기업에 가서 아버지가 이번 만큼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발자로 성장하고 있는 나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라곤 굳게 다짐했다.

취업 후 가족들과 대화했을 때 이 일을 떠올리며 아버지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전했다. 아버지 덕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대기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결국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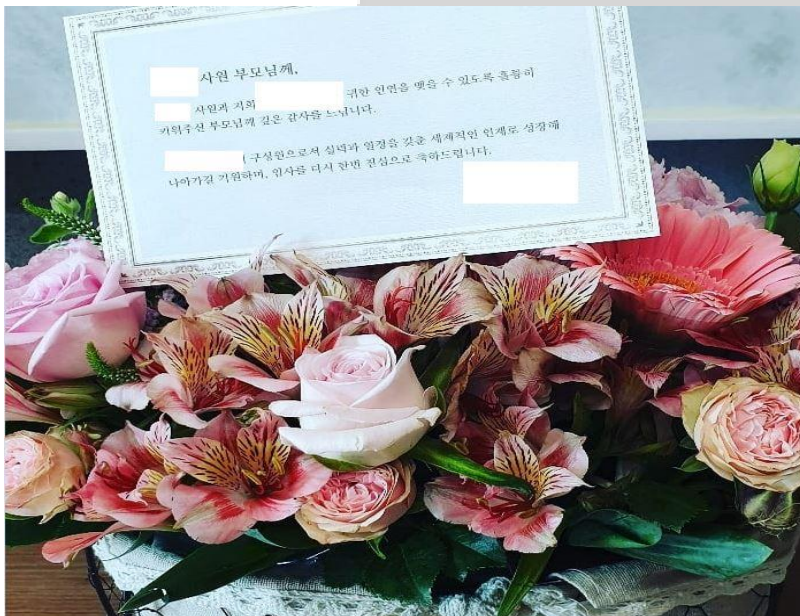
1-3. 대기업 취직하면 좋은 이유

먼저, 대기업외에 다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순히 대기업에 가면 어떤 이점이 있는 지 알려주겠다.

첫번째 이유는 효자가 될 수 있다.

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를 기억한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별거아니라는 반응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때는 허무하면서 서운했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 아버지 방에 들어가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분들께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 라고 무덤덤한 척 자랑하고 계셨다.



합격 소식을 받고 몇 일 뒤 회사에서 꽃바구니 선물이 온다. 자식을 잘 키워서 회사에 보내줘서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부모님께 보낸 꽃바구니다. 이때 부모님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은 꽃바구니로 바뀐다. 늦은 나이에 입사하며 몇년 동안 속을 썩인 것을 만회하며 효자가 될 수 있다.

두번째 이유는 돈이다.

| | |
|----------------------|------------|
| 15:37:21 급여 | 입금 |
| <input type="text"/> | 5,402,113원 |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주변 친구들의 연봉은 얼마인지 확인했을 당시 2,200만 원에서 정말 많이 받아도 3,000만원 수준이었다. 나의 목표는 3,000 ~ 3,500에 시작하는 것이었다. 입사 후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확인한 연봉은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4천대 그 이상이었다. 23년 기준 대기업 초봉 기준은 5천이 넘는다. 추후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직전 회사의 연봉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된다. 초봉이 높아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매년 인상을 기대할 수 있어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월급날이 되면 내가 잊고 있더라도 따박따박 잘 들어온다. 월급 밀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세번째 이유는 동료이다.

일을 할 때 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 지에 따라 내가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대기업에는 어느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입사를 한다. 많은 실력자가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네번째 이유는 복지이다.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다. 내가 직접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회사 복지로 충분하다. 각종 계열사, 제휴사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단체보험, 경조사 지원 등 누릴 수 있는 복지들이 많다.

대기업에 못 간다고 느꼈을 때 했던 말이 있다. “대기업에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기계부품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 같아서 안갈래.” 라고 말이다. 선배한테 이 말을 듣고 나 또한 대기업에 못 가는 것을 마치 안가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다.

대기업에 가게 되면 언급했던 장점 외에도 더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당연히 단점도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거대한 기계속의 하나의 부품처럼 일하게 된다면 그 때 이직해도 늦지 않다. 이미 높은 초봉으로 몸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도 어느정도 수준의 연봉을 기대하며 이직을 할 수도 있다. 초봉이 높게 책정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불이익은 전혀없다. 장점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정도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Part2. 취업 준비 단계

앞 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대기업에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기업에 가면 좋은 이유들을 나열하며 동기부여를 줬다. 고등학교 내신 9등급이었던 내가 그때와 다름없는 대학생활 1년을 시작으로 두 번의 휴학까지하며 동기들 보다 늦은 시작을 했고 원래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아니었다. 첫 복학했을 때 연필을 어떻게 쥐었더라 하는 어색함까지 들었을 정도로 공부와는 거리가 멀던 사람이었다.

이런 나도 아버지 덕분에 대기업에 가고자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으며 뒤늦게 노력하여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고 확신한다. 단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지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다. 만약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이 글을 계속 읽어라.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대기업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먼저 사회에 나간 학교 동기, 선배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추천해주는 중소기업으로 쉽게 취직 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곳으로 취직을 했다. 3~4학년 때 취준을 위해 스펙을 쌓는 환경은 형성되지 않았었다. 강의를 듣고 학점을 채우고 졸업조건을 갖추는 것에만 몰두했다. 2~4학년까지 좋은 성적으로 수업을 잘 따라갔던 학생이지만 결국 취업준비는 따로 했어야 하는 것을 졸업 후 깨달았다.

졸업 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 시작했다. 이때 많은 유혹이 눈길을 끌었다. 취업학원, 국비지원 등 다양한 개발자 양성소에서 취업까지 연계해준다고 홍보를 한다. 한 달 동안 다시 고민했다. 내가 가게 되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시너지도 얻을 것이고 학원의 지원을 받아 취업 준비도 완벽하게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내가 열심히면 무조건 가능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난 벌써 남자동기들과는 2년 여자동기들과는 4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고있다. 1년을 더 투자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지만 당시 지방에서 스터디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는 혼자서 직접 부딪히면서 취업준비를 했다. 그래서 더 시간낭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준비하는 과정은 모두 나에게 도움은 되었겠지만 방법을 몰라 쓸모 없이 무식하게 했던 것들이 많았다.

이미 이런 경험을 했던 선배가 있었다면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도 해소되었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내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기업을 위한 취업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알려줘서 막연함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다만, IT 특성상 너무 다양하다. JAVA 언어를 예를 들어도 웹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런 프로젝트를 해라.’까지의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다.

2-1. 대기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IT 취업이 목적인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포트폴리오는 필수는 아닌 선택이다.

어느 기업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는 기업은 없다. 자소서 등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포트폴리오 제출은 필수는 아니다. 나 또한 지원할 당시 포트폴리오를 첨부할 곳도 없는 곳이 많았고 강요하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는 단 1%라도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잘 적은 자소서라도 나를 글로 표현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필수가 아니지만 준비하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소개해주겠다. 앞서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언급했다. 내가 경험한 것과 성장하는 과정 또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다. 이는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IT블로그

내가 공부한 IT 기술관련 기록을 할 수 있다. 블로그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내용들을 포스팅한다.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더 깊게 공부하게 된다. 내가 공부하는 기술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포스팅하면 추후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나의 생각과 감정, 경험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딱딱한 포스팅만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포스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감정을 써보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것들도 포스팅하면서 모든 경험들이 기록이 되는 것도 장점이다.

블로그를 통해 심사자들에게 내가 어떤 노력과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토이프로젝트

토이프로젝트는 기간, 시간, 규모의 제한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마치 장난감 같은 프로젝트를 말한다. 진로를 개발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개발만 할 수 없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술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면 된다. 프로젝트라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가 사용해보고 싶은 기술을 통해 TO-DO LIST를 만들어도 괜찮다. 주변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도 좋다.

내 경험을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날 누나가 사진을 정리 하는 것을 보았다. 매년 1년 동안 찍은 아이사진을 가지고 일자별로 정리하여 책을 만든다고 한다. 찍은 사진이 1만 장 이상이 되어 한 달정도 소요해서 일자별 폴더에 사진들을 찾아 넣는다고 했다. 이때 내가 프로그램으로 사진들을 일자별로 자동정리해주는 것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싶어서 특정 폴더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파싱하여 파일의 속성을 읽어 들여 찍은 날짜를 분석하여 폴더를 생성하고 해당 폴더에 사진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카톡 사진전송으로 전달받은 사진 일부는 찍은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 할 수 없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폴더로 모아두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한 달이 소요되던 작업을 1분 안에 끝내게 되며 수동으로 찍은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 사진이 평균 50개 미만으로 남았다. 30분이면 분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것을 할지 고민이 되면 주변을 둘러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나씩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팀프로젝트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팀 프로젝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많은 부서끼리 협업을 하지만 팀 내에서도 파트 내에서도 협업을 진행해야 한다. 내가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했더라는 경험이 있으면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완성 시킬 수 있다.

팀프로젝트를 정리할 때 주의점은 팀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부분을 맡아 프로젝트에 기여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필수는 아니지만 합격 확률을 높여주고 개발자에게는 자신을 어필 할 수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할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몇가지라도 꼭 하길 추천한다.

2-2. 서류전형 프리패스 하는 자소서

한번도 이력서를 넣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에서도 가장 막막했다. 지원서류를 받아보고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자소서를 침묵해주는 교수들을 찾아 결제를 하고 자소서를 받고 싶을 지경이었다.

자소서 작성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다. 자소서는 나의 첫인상이 될 나를 소개하는 것이다. 내가 잘났다고 쓰면 좋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만 적으면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해낼 사람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

각 항목은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 좋다. 나의 장점을 말해야하는 항목에도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의 장점을 어필해야한다. 지원 분야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최소 3개는 있어야 한다.

대부분 자소서 문항은 3개정도이며 추가로 1~2개 더 있는 기업들이 있다. 프로젝트 경험을 적을 때 주의해야할 점은 내 자소서를 먼저 보고 심사하는 사람은 개발 기술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인사팀에서 서류심사를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게 기술 스택을 나열하게 되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흥미롭지 않은 자기자랑하는 자소서로 보일 수 있다.

자소서는 나열식으로 적는 것이 아닌 풀어서 기승전결 스토리 형식으로 적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진행하는 도중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나았는지. 결말까지 완벽한 스토리 일수록 좋다. 항상 결말이 있어야 한다. 수상을 한 것, 내가 개발한 서비스를 운영해본 것, 내가 개발한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된 것 등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사실 별것 아니었지만 약간의 과장을 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된다.

과장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조금 MSG를 더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자소서를 적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면접에 가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다. 자소서에는 내가 사용했던 기술스택들을 나열하면서 적을 필요가 없다. 궁금증이 생기도록 여지를 남겨야 한다.

자소서를 완성한 다음에는 꼭 수십번 읽어봐라. 소리를 내서 읽어 보기도 하는 것이 좋다. 계속 읽어보면 제대로 읽히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내가 쓴 것은 외울정도로 읽어보는 것이 완벽한 자소서가 되는 길이다.

처음 작성하면 막막할 것이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힘든 법이다. 한번 자소서를 쓰게 되면 다른 기업 자소서를 쓸때 비슷한 스토리로 계속 쓰게 되서 금방 쓸 수 있게 된다. 자소서 쓰는 게 막막하다고 포기하기에는 이것만 통과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포기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결국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한다.

2-3. 대기업 코테 3개월 완성

코테라고 하면 알려지를 알고 있는 것 마냥 기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코테 공부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왜 코테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겠다.

나는 대학교 수업에 집중하며 나름 기초를 잘 공부했다고 생각했다. 코딩테스트는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과 전혀 달랐다. 대기업 코테를 뚫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주변에는 코테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다수가 대기업에 지원조차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코테를 보는 기업을 걸렀다.

코테를 보지 않는 기업을 찾다보면 중견 ~ 대기업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다. 코테를 포기한다면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는 셈과 같다. 코테를 준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교 1학년때부터 코테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를 많이 했었다. 다만 지금와서 나는 얘기할 수 있다. 누구든 제대로 노력을 하면 대기업 코테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백준온라인저지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부했다. 무식하게 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단계별 문제를 레벨 1부터 풀기 시작했다. 입출력부터 풀기시작했는데 몇 단계 가지 않아 막혀버렸다. 머리속으로는 절대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노력파다.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답지를 보지 않기로 하고 10시간이든 붙잡고 있었다. 무식했다. 엄청난 시간낭비를 했다는 것을 10일정도 후에 깨달았다. 문제를 수백번 읽는다고 해서 풀이법이 머리속에서 튀어나올리 없다는 것을 늦게 알게되었다. 내가 했던 방법대로 노력한다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코테들이 더 이상 취준생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는 아직 나도 풀지 못 한다. 나는 취업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채용을 위한 코테는 평균 3시간 정도로 문제는 평균적으로 3문항 정도가 출제된다. 따라서 제한시간안에 3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에서 문제를 내야한다. 무작정 어려운 문제를 3시간 안에 풀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테는 천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개발 기초가 어느정도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코테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언어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나는 복학 후 처음 접한 언어가 JAVA이기 때문에 JAVA로 코테를 준비했다. 당시에는 C++이 코테언어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 결국 탈락했다.

JAVA는 코테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속도면에서도 불리하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해야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C++ 또는 Python은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거의 없다. 또 STL(Standard Template Library) 등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구현되어 있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기법들을 바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자바는 직접 구현해야하는 것들이 많아서 단기간에 코테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신이 주로 하던 언어가 아니라도 C++ 또는 Python을 코테용으로 준비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하나의 언어를 공부했다면 다른 언어 기초 문법정도는 오래 걸리지 않고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 문제 | 출처 | ICPC |
|-------------|-----------------|--------------------------|--|
| > 전체 문제 | > 폰 사랍이 한 명인 문제 | > ICPC | > Regionals |
| > 문제 출처 | > 아무도 못 푼 문제 | > Olympiad | > World Finals |
| > 단계별로 풀어보기 | > 최근 제출된 문제 |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 > Korea Regional |
| > 알고리즘 분류 | > 최근 풀린 문제 | > 한국정보올림피아드시도지역본선 | > Africa and the Middle East Regionals |
| > 추가된 문제 | > 랜덤 | >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동아리 연합 | > Europe Regionals |
| > 문제 순위 | | > 대학교 대회 | > Latin America Regionals |
| | | > 카카오 코드 페스티벌 | > North America Regionals |
| | | > Coder's High | > South Pacific Regionals |

언어를 선택했고 기초 문법을 익혔다면 백준온라인저지 사이트의 단계별로 풀어보기의 입출력과 사칙연산, 조건문, 반복문, 1차원 배열, 문자열, 2차원 배열, 약수, 배수와 소수를 먼저 풀어라. 이는 코딩테스트를 위한 문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를 풀 때 모른다면 과감하게 바로 네이버에서 '백준 1023' 이런식의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해설들이 있을 것이다. 해당 풀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다음 단계는 자료구조를 공부해야한다. 스택, 큐, 리스트, 그래프 등 개념을 잘 이해해야한다.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자기한테 맞는 자료구조 설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모든 자료구조를 다 완벽하게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자료구조들의 특징은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유형별로 격파하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낭비를 했다. BFS, DFS, DP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코테를 준비할 때 불가능이라고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문제를 보고 BFS로 접근해야할지 DP로 접근해야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을 보고 나서는 BFS로 풀면되는구나 하겠지만 실전에서 내가 그것을 판단할 실력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한 가지 유형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푸는 것이다. 예를 들어 BFS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백준온라인저지 사이트의 검색을 이용한다.



BFS 필수라고 검색하고 문제집 탭으로 가면 좋은 문제들을 모아놓은 있는 문제집이 있다. BFS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문제부터 푼다. 이때도 문제를 읽고나서 10분 정도 생각해보고 답안을 찾는다. 답안을 가지고 이해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단순히 답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된다. 답안 없이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를 내것으로 만든다. 다음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푼다. 몇 번은 계속 답을 봐야 알 것이다. 하지만 점차 풀다보면 답을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풀이를 쓸 수 있게 된다.

결국 문제은행 식으로 해당 유형의 문제가 익숙해져서 내가 실제 코테에서 문제를 보면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감이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별 코테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가고싶은 기업에 따라 특정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을 파악 해야 한다. 백준 온라인 저지 사이트에 문제집을 클릭하면

기업에 실제 출제되었던 혹은 비슷한 유형별로 문제집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 또는 서류를 넣은 기업들 위주로 최종 연습을 한다.

나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코테는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코테를 공부하는 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말 막막했고 불가능이라고 느꼈던 코테를 이 방법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같이 졸업한 후배들과 술을 먹은 적이 있다. 한 후배는 이직을 준비한다고 고민을 털어냈다. 나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기업 신입으로도 한번 준비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코테 어렵잖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주었다.

며칠이 지나 카톡이 왔다.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실전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후배도 JAVA를 주로 했고 나는 C++을 추천했기 때문에 다시 기초 문법을 익히고 입출력부터 시작했다. 알고리즘 유형 공부를 시작하고 몇 일 뒤 ‘DFS BFS 완벽하게 다 풀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유형으로 풀면 될까요?’ 라고 카톡을 받았다.



이 후배는 한번도 코딩테스트 준비를 해보지도 않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했음에도 금방 익히게 되었다. 사실 나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굉장히 오래걸렸다. 코테 준비를 하기 전 문제를 보았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대기업을 가기 위해 코테는 무조건 거쳐야하는 것임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했다. 나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코테를 통과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입사 후에 동기들과 후배들을 보면 기계적으로 코테 문제를 푸는 것을 보았다. 다들 문제은행식으로 많이 풀면서 익힌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테는 입사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기 전부터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BAEKJOON
ONLINE JUDGE

[Baekjoon Online Judge \(acmicpc.net\)](http://Baekjoon Online Judge (acmicpc.net))

코테를 준비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이트는 3개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백준 온라인 저지 사이트. 이 사이트는 문제가 아주 방대하고 문제집 시스템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 사람들이 해당 문제를 풀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 뿐 아니라 해답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풀이를 블로그에 포스팅 해놔서 내가 막혔을 때 바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스 \(programmers.co.kr\)](http://programmers.co.kr)

다음은 프로그래머스다. 문제 수가 많지는 않지만 유형별로 꼭 풀어봐야할 문제들이 있다.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그래머스 코테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해서 코테에 가면 프로그래머스 코테환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두가지면 기업용 코테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알고리즘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겠지만 코테를 통과할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

SW Expert Academy

<https://swexpertacademy.com/>

마지막으로는 SW 전문가 아카데미이다.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강의와 문제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서는 코딩테스트에 관련된 주제 뿐아니라 CS지식과 다양한 기술에 대한 강의도 있어 취업준비할 때 매우 도움이 된다.

코테 준비 요약

1. 언어 선택 (C++, Python 추천)
2. 선택 된 언어 기본 문법 익히기
3. 백준온라인저지 사이트 단계별로 문제풀이에 필요한 문법 익히기
4. 자료구조 익히기
5. 마구잡이식 문제 풀지말고 알고리즘 유형별 하나씩 익히기
6. 기업별 기출 문제 & 자주 나오는 유형들 익히기

2-4. 내가 주도하는 면접 준비

이 단계까지 왔다면 본인의 실력을 어느정도 인정 받았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이제 직접 불러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계이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게임으로 치면 마지막 보스몬스터를 잡으면 보상이 주어지지만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다시 첫번째 스테이지부터 해야한다. 서류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실력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만한 사람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신입 한사람 때문에 하나의 팀이 어수선하게 되는 것을 원치않는다. 그리고 신입은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그에 알맞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인성과 자세에 포커스를 두고 어필해 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잘난 것 보다는 잘 적응 할 수 있으며 빠르게 배워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내가 성장한 뒤에는 다른 동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자.

면접에서 자세는 항상 바르게 하고 입에는 살짝 미소를 띠는 것이 좋다. 웃는 얼굴은 항상 좋은 첫인상을 남긴다. 긴장해서 몸이 흔들흔들하거나 다리를 떠는 행동이 무의식에서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너무 긴장이 풀려있어 편해보이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긴장해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다.

목소리는 자신감있게 하며 끝을 흐리며 말하는 버릇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말 맺음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자.

대기업 면접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인성, 기술, 토론 면접이다. 각 면접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확인해보자.

인성면접

반드시 1분 자기소개를 준비 해야한다.

기업마다 자기소개를 시키는 기업이 있다. 면접관에 따라 자기소개 없이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지만 준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도 면접을 볼때 미리 준비하고 외워갔다.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를 한사람은 티가 난다. 면접관 입장에서 볼때 ‘외워왔네?’ 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준비를 열심히했네’ 라는 인상을 줄것이다.

자기소개 첫마디는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를 달아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꼰등에서 1등까지 경험한 지원자 범고래 입니다.’ 이어 내가 소개한 수식어를 뒷받침하도록 짧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것을 경험 혹은 내가 가진 강점으로 회사에 어떤 사원이 될 것이다와 같은 포부를 함께 얘기하는 것이 좋다. 스토리를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유발시켜 내가 얘기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첫번째 질문은 내가 한 자기소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인성 면접은 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임하면 크게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인성 면접에서 무겁게 진행되는 경우를 딱히 본적이 없다. 면접관들도 지원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너무 잘 보이기 위해 과장과 거짓을 이용하지 말고 솔직한 답변을 해야한다.

기술면접

기술면접을 위해 자소서에서 한 항목당 한가지 프로젝트를 적었다. 모든 면접에는 내가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적는 것이 유리하다. 내가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을 이용했고, 그 기술은 어떤 특징이 있다 라고 간략하게는 숙지해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팀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내가 맡은 부분은 어떤 것이 었고, 팀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결했는 지를 생각해두어야 한다. 기술면접이라하여 너무 깊은 기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두명의 지원자와 두명의 면접관이 있는 다대다 기술면접을 경험했다. 나와 같이 면접을 본 지원자는 팀프로젝트에서 맡은 부분을 물었을 때 ‘전부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면접관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부분을 전부다 했습니까?’ 그때 부터 지원자는 당황을 했는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어떤 것을 개발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JAVA로 백엔드를 개발했고 ...’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지 못 했다.

내가 정말 혼자캐리형으로 진행했더라도 내가 중점적으로 맡은 부분과 팀에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팀원이 못해서 나 혼자 다했어요 보다는 팀원이 어려워했지만 내가 같이 도와주며 결국 끝까지 함께했다라는 스토리를 더욱 선호할 것이다.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메인이되는 기술 하나정도를 던져주고 어떤 목적을 가진 S/W 또는 H/W인지 얘기한 뒤 주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면 좋다. 예를 들어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멘토와 멘티를 매칭해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멘토 유저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멘티로 가입한 유저들이 자신에게 맞는 멘토에게 신청하여 일대일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라고 사용한 기술부문과 개발한 것은 어떤 것인지와 어떤 기능이 있는 지 소개를 해주면 그에 맞춰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한 프로젝트들이 간단한 것이라도 너무 낮춰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아..제가 한것은 그냥 JAVA로 멘토링같은 사이트 개발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지원자들도 있다. 개발한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소개하면 받아드리는 사람도 간단해보이지만 관찮은 것을 만들어봤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술 면접은 내가 자소서에서 쓴 프로젝트와 기술 외에 질문도 온다. 최신 기술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면접을 보는 시점에서 최근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술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면접을 볼 때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뜨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미리 어떤 기술이 요즘 핫한지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고 동향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한다. 기술면접을 준비할 때는 해당 기업이 요즘 핫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기업에서 밀고 있는 기술은 어떤 것이고 어떤 제품, 솔루션이 있는지를 알아가야한다.

최신기술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 덧붙여서 이 기업에서는 해당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매우 잘 준비했고 입사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기술에 대해 모르더라도 지어내지 않고 단순히 ‘모릅니다’ 보다는 ‘ 질문하신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공부해보았습니다, 또는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도 이 기술에 관심이 많고 이런 솔루션도 개발 중인 것으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등 나한테 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도 당시 여러 기술 질문 중 한가지는 처음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때 블록체인에 관한 나의 경험과 회사에서 밀고 있는 제품을 얘기하며 면접관의 호기심을 샀다.

마지막으로는 CS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CS지식이란 컴퓨터사이언스 즉, 컴퓨터공학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이다. 대학 때 배운 컴퓨터공학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말 간단한 'Stack 자료구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같은 것 이다.

기술면접은 지원자가 실력자가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예비 신입에게 기술적 실력을 기대하지 않는다.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 가르치면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토론면접

토론면접은 현재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의 토론일 수 있고, 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회의를 하는 식의 면접이 진행 되기도 한다. 토론 면접에서 합/불에 대해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중간은 해야한다. 너무 안튀어도 또 너무 튀어도 좋지 않다.

간혹 토론 면접에서 너무 튀려고 욕심을 내는 지원자들이 있다. 나의 주장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지원자의 말을 끊으며 자기 주장을 시작하는 지원자도 있다. 반대로 아무말도 하지 않는 지원자도 있다. 자신이 속한 그룹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예의있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주장을 전달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최근 사회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찬성 또는 반대 입장 모두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준비 시간이 없다면 큰 비중을 들여 준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2-5. 합격에 도움 되는 자격증

어학자격증

토익, 토스, 토플 등 다양한 어학자격증이 있다. IT업계에서는 어학자격증에 대한 커트라인이 낮다. 예를 들어 토익의 경우 700점정도라 하지만 예전부터 토익보다 토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어학자격증은 내가 지원할 기업의 최소 요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최소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서 두 달정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거나 서류에서 광탈할 수 있기때문에 꼭 잘 확인하여 준비하자.

정보처리기사

기사 중에서 가장 따기 쉬운 자격증이라고 필요없는 자격증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보처리기사를 공부하면 CS에 대한 지식은 쉽게 익힐 수 있다. 정보처리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해 알겠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SQLD

국가공인자격증으로 SQL 개발자 능력에 대한 자격증이다.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으며 SQL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SQL이 빠지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된다. SQL 역량을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이 되는 자격증이다.

Part3. 마음가짐 단계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엄청난 학벌을 가진 실력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준비하기에 앞서 중요한 마인드셋을 심어줄 차례다.

먼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¹에 휩싸여 안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주로 걱정이 많아 질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쓸데 없는 걱정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내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노력하지 않았다. ‘과제는 너무 어려워.. 교수님이 알려준거는 이렇게 아닌데 너무 난이도를 어렵게 뒀어’ 등등 머릿속으로 내가 포기해야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며 노력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었다.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해서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컴공은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와 같다.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 발목을 잡을 뿐이다. 계속 나아가기 위해 할수있다고 생각하고 한발자국씩 계속 나아가라.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걷고 있는게 분명할 테니까.

3-1.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할때 후회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미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과거에 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다.

아무리 후회를 한다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미래가 있다.
과거에 못 했던 것은 반성하되 후회하며 시간낭비하지 말자.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곤 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과거로 돌아왔지만 미래의 기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설정하고 내가 지금 이 시점을 미래에서 원했던 거라고, 그러니 달라져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과거까지 가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3-2. 자신에게 엄격하라

‘이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라고 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거기까지로 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기위해 한계를 두지 않아야 한다. 공부를 하면서 느꼈다. 내가 하는 10시간과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10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남들이 1~2시간이면 익힐 수 있는 것을 나는 5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5배 정도를 해야 남들 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공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5년이 넘어가는데 매일 눈에 띄는 의미없는 질문들이 있다. ‘매일 2시간씩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7일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대답해준다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다.

2시간에 2장씩 보는 사람과 2시간에 10장씩 보는 사람이 절대 같을 수 없다. 똑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한다면 다음날도 2시간에 2장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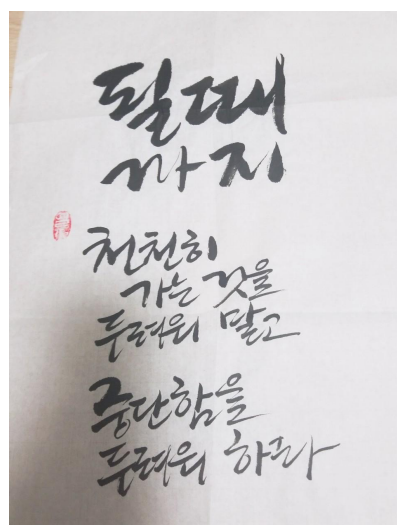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게 되면 내가 지치고 포기하지 않을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남들이 할때 나는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치고 포기한다면 남들처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것이라 항상 생각했다. 내가 늦게 출발했으니 오래달기리더라도 조금더 빨리 뛰어야 한다.

3-3. 조금해하지 마라

방금 전까지 빨리 뛰어라했는데 조금해하지말라라고 하면 의문을 표할 수 있다. 나의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고 조금한 마음에 아무데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취준생들은 쉽게 조금해진다. 주위 동기들이 점점 취직을 하고 있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있고 부모님들과 주변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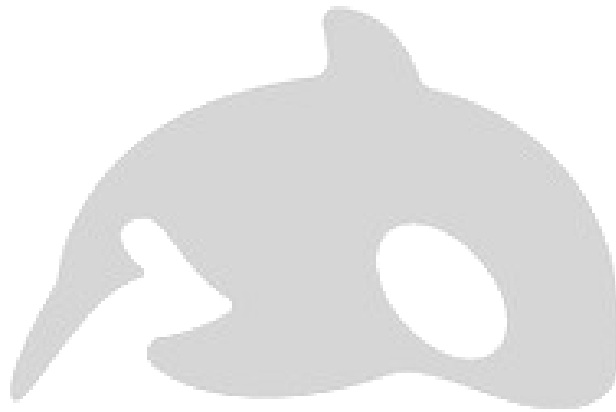
조금 늦어도 괜찮다. 결국 이루면 모든게 해결된다. 조금 늦어도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 나 또한 2~4년 늦었지만 역전뿐아니라 꽤 많이 앞서 가고 있는 것을 경험 했다.

코딩테스트를 위해 서울에 갔던 적이 있다 코딩테스트 후 서울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본 글이 있다. 마음에 새기고자 내가 선택한 글귀를 붓 글씨체로 적어주는 것을 받아서 가져왔다. ‘될때까지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중단함을 두려워 하라’ 라는 것이다.



이 때까지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포기하지말자라고 수 십번 되새겼다.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 대기업 취업을 했다.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대로 결국 될 것이다. 못하는 것이 아닌 도전해보지 않은 것이다.



단지, 먼저 그 과정을 거쳐간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은 후배들에게

간절한 마음에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전 잘했기 때문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서류도 넣어보고 시험도 쳐보고 면접도 가봤습니다. 대부분은 시작도 하기전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은 꼭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설마..라는 마음이라도 있다면 하나 하나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나고 나면 불안과 막연함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 두번도 아니었습니다. 첫번째 한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진 것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합격을 기대했고 설마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음 한편에서는 떨어져도 첫 번째 도전에 최종까지 갔으니 희망이 있으니 관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간절했던 탓인지, 운 좋게 최종까지 갔다고 생각했던 탓인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서류부터 시작해야하지만 이제부터는 안되면 어떡하지 라고 막막했던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에 모든게 잘 되면 좋지만 한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

취업 기간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불합격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면 문은 열립니다. 2년 전에 한 신입이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해줬습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2년 동안 계속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원하는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도전하는 모든 취준생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자료는 Google Docs 무료 나눔 글꼴, '나눔 고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저작권법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